

12지 이야기(10)

닭 - 다섯 가지 덕을 지닌 동물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j8509@comcast.net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지에 살던 붉은 빛깔 멧닭(또는 들닭)을 기원전 2000년경 인도사람들이 가축으로 만들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에서 '대닭'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것은, 가축화하는 과정이 대와 연관되었음을 나타낸다. 벼과 식물인 대는 5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은 다음 죽는다. 멧닭들이 그때 대밭으로 몰려들어, 가지 끝에 매달려 아래로 늘어진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접촉했을 것이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번식력도 왕성해져 쉽게 가축화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축화의 목적은 닭싸움을 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걀이나 고기를 생산하려고 길러졌고, 그에 맞게 아주 여러 품종이 개발되었다. 노란 피부는 나중에 붉은 색 멧닭이 회색 멧닭과 잡종 교배되어 나타난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 200억 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닭 고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널리 식용되는 단백질 공급원이다. 기르기 쉬운데다가 가난을 물리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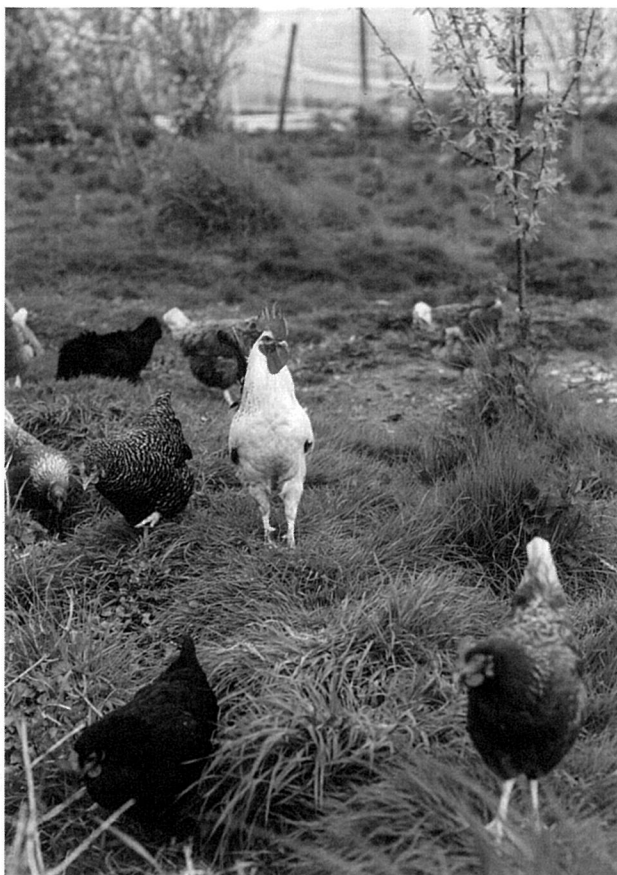
데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널리 알려진 자선가 빌 게이츠가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국가들에 닭 10만 마리를 보내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어렸을 적에 본 닭의 모습은 이랬다. 이른봄에 짚으로 둥지를 엮어 초가지붕 밑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의 들보에 매달아주면, 암탉이 자리를 보아 알을 낳기 시작한다. 열대여섯 개쯤 되었을 때 모두 둥지에 넣어주면 암탉이 알을 품어 스무 하루를 보낸다. 노란 병아리가 깨어 나오면 행여 다칠세라 날개 밑에 두고 보호하면서 모이 쪼는 법부터 가르친다. 모이를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정이 담긴 '구구구'와, 목을 길게 빼고 깃털을 곧추세운 채 질러대는 날카로운 소리로 새끼를 기른다.

병아리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암탉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달려든다. 그렇게 정성껏 기르던 새끼들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내쫓아 제 갈 길을 가게 만든다. 이때쯤이면 예쁘기만하던 병아리들의 모양이 흉하게 변하면서 암수의 구별이 분명해진다. 수컷들 가운데 뼈대가 굵고 색깔이 고운 것은 주인에게 선택되어 집안의 모든 닭을 거느리면서, 새벽을 알려주는 장닭의 임무를 수행한다. 때로는 안방에까지 드나들면서, 음식물 찌꺼기며 낱알, 벌레, 뒷터의 야채 등을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았다.

요즘 닭들의 처지는 마치 죄수의 신세다. 여러 마리가 한 방에 갇혀 살거나 닭장에 한 마리씩 들어있으면서, 하는 일은 알 낳는 것이나 살 찌는 것뿐이다. 해가 뜨고지는 것도 모르며, 조절되는 전깃불에 따라 먹고자고 한다. 알 낳는 기계,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가 되었다. 좁은 곳에서 많은 수가 살기 때문에 전에는 없던 질병까지 많아져, 예방주사나 약으로 이겨내야 한다.





‘브로일러’는 통째로 구워 먹기에 알맞도록 개량된 닭이다. 육계라고도 하며, 병아리 단계를 지나 영계가 되면 바로 식육용으로 도살당한다. 자국민이 즐겨 먹는 닭가슴살 생산이 목적인 미국의 브로일러 산업은 부산물도 많아, 한 해에 250만 톤 이상을 수출한다. 날개와 닭발은 중국에서, 다리는 러시아에서, 내장은 남아프리카에서, 털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져간다. 내장은 애완동물의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며, 털은 갈아서 동물의 사료나 플라스틱 강화제로 이용한다. 닭이 생산하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만하다.

우리 민속에서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었으며 다산의 상징이었다. 새벽 닭울음은 어둠을 열어 밤을 지배하는 악귀들이 모습을 감추게한다고 믿었다. 닭은 기러기를 상징하기도 했지만, 잡귀가 범하지 못하도록 해준다고 믿어 전통혼례에 사용되었다. 제사를 모실 때는 닭의 울음소리를 기준했다. 삼성출판박물관에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장닭목판화가 소장되어 있다. 한 가정의 융성이나 액막이를 바라는 마

음에서 새해초면 장닭그림을 문에 붙이기도 했다.

닭은 덕목을 다섯 가지나 지닌 동물로 알려져 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 문文이요, 발에 날카로운 머느리발톱이 있어서 무기가 되니 무武이며, 적과 잘 싸우는 용기가 있으므로 용勇이고, 먹을 것을 얻으면 서로 알려주므로 인仁이며, 때를 알려주므로 신信이다. 모두가 옛날 야성을 지녔을 때나 표출하던 덕목이 되어, 지금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닭띠의 사람은 평범한 것을 싫어하여 독특한 개성을 가지며, 화려함을 좋아한다. 의리가 있고, 거짓을 모른다. 신념에 차있는 노력이며, 상상력이 뛰어나고, 모험심도 강하다.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타입이다. 반면 독선적이며 몽상가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의욕이 지나치고 보수적이다. 급한 성격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흔히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잦다.

나는 닭서리가 죄가 되지 않던 어린 시절을 살았다. 속담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닭과 관련된 말은 삼계탕參鷄湯, 계륜雞肋, 계구우후鷄口牛後, 군계일학群鷄一鶴 등 아주 많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계란유골은 좋은 기회를 만나도 복이 없으면 덕을 못본다는 말이다. 정승 황희가 매우 가난하다는 말을 들은 임금이 하루를 정해놓고 그 날 남대문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다 황희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한다. 하필 그 날 하루내 비가 내려서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가 저녁 때에야 달걀 한 꾸러미가 들어온다. 삶아 놓고 본즉 모두 껍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꿩꿩다는 (꿩)음과 ㅼ의 음이 비슷해서 와전되어 鷄卵有骨로 전용되었다고 한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안에서 쪼는 것을 줄뼉이라 하고, 암탉이 밖에서 쪼는 일을 탁새이라고 한다. 두 가지 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줄탁동시啼啄同時라고 하여, 사제간의 인연이 어느 기회를 맞아 더욱 두터워진다는 뜻으로 쓰인다. ♡

